



**표훈(表訓)의 일승세계론(一乘世界論)과 불국사·석굴암  
- 8세기중엽 신라 화엄학 이해 서설**

The One Vehicle World[Eka-yana lokadhātu] Theory of Pyohun and the Founding of Bulguk-sa Temple and Seokkuram Cave

---

<b>저자 (Authors)</b>	최연식 Choe, Yeon-Shik
<b>출처 (Source)</b>	<a href="#">불교학보 70</a> , 2015.4, 95-120 (26 pages) <a href="#">BUL GYO HAK BO 70</a> , 2015.4, 95-120 (26 pages)
<b>발행처 (Publisher)</b>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b>URL</b>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0202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02021</a>
<b>APA Style</b>	최연식 (2015). 표훈(表訓)의 일승세계론(一乘世界論)과 불국사·석굴암. 불교학보, 70, 95-120.
<b>이용정보 (Accessed)</b>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30 13:13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표훈(表訓)의 일승세계론(一乘世界論)과

## 불국사·석굴암

### - 8세기중엽 신라 화엄학 이해 서설

최연식

동국대학교(서울) 사학과 부교수

I. 머리말

II. 8세기중엽 義相系 화엄학의 대두와 表訓

III. 表訓의 一乘世界論 : 五重海印·五重觀·五重世界說

IV. 불국사·석굴암 건립의 사상적 배경

V. 맺음말

### 〈한글요약〉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부석사와 인근 지역에서 개인적 수행에 집중하던 의상계 화엄학파는 8세기 중엽 이후 수도에서도 활발하게 활약하면서 불교계의 중심적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경주의 황복사에서 스승 의상의 화엄사상을 구체화하여 설법했던 표훈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상은 부처가 해인삼매에서 깨달은 진리가 보현보살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 『화엄경』인데, 그것은 일상적 언어가 아니라 법계연기적 언어로 표현되었으므로, 수행자들은 명상을 통하여 법계연기적 언어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화엄경』을 제대로 이해하여 깨달음에 이르라는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표훈은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승세계설을 제시하였다. 즉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 수행자의 인식의 발전과정, 부처의 깨달음과 수행자의 인식의 경지에 대응되는 불국토의 모습들을 계기적으로 구분하는 5중해인·5중관·5중불국토의 이론을 제시하고 이들을 종합화하였다. 이러한 일승세계설은 의상계의 화엄사상이 불교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찍이 표훈에게서 화엄을 배웠던 김대성은 토함산에 표훈의 일승세계설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사찰을 만들고 그곳을 표훈과 의상계 화엄학자들을 위한 거점 사찰로 제공하였다. 표훈이 제시한 5중해인·5중관·5중불국토 등은 크게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토함산정에 위치한 석굴암(석불사)과 산기슭에 자리잡은 불국사는 각기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을 표현한 것이었다. 부처의 정각 직후의 모습을 형상화한 석굴암의 본존은 5중해인 중 부처의 삼매인 3본정을 상징하는 경전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다양한 불국토와 이상세계의 모습으로 장식한 불국사는 5중불국토 중 보현의 영역인 (연)화장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성은 이처럼 일승세계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석굴암과 불국사를 건립함으로써 토함산을 일승의 세계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표훈, 의상, 김대성, 불국사, 석굴암, 일승세계론, 5중해인, 5중불국토

## I. 머리말

통일신라 시기의 불교는 교학 연구가 활발하였고, 그 중심에 義相(625-702)에 의해 전래된 화엄학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통일신라 시기, 특히 中代에 불교 교학 연구가 활발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8세기 전반까지는 그 중심은 의상계 화엄학이 아니라 유식학, 특히 『瑜伽師地論』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 경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6세기 중엽부터 地論學과 攝論學 등 유식학 연구가 성행하였고, 7세기 중엽 玄奘이 인도에서 돌아온 후에는 그가 전래한 新唯識에 대한 연구가 새로 번역된 『유가사지론』과 『成唯識論』에 기초하여 불교계의 전체의 주요한 연구 경향이 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러한 중국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던 당시 신라 불교계의 중심에 유식학 연구가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sup>1)</sup> 義相이 전해온 화엄교학에 대하여 불교계가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唯識學을 비롯한 다른 불교 교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화엄교학에만 집중하며 다른 학파와의 학문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았던 의상계는 당시 불교계에서 어디까지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소수자에 불과하였다.

불교계 중심에서 떨어져 있던 의상계 화엄학파가 불교계의 주류적 흐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8세기 중엽 이후의 일이었다. 중국 불교계에서 유식학을 비롯한 교학 연구가 쇠퇴하는 가운데 신라에서도 기존의 유식학을 토대로 한 종합적 학문불교에 대신하여 특정 경전에 대한 연구와 실천적 신앙을 중시하는 불교적 흐름이 크게 대두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의상계 화엄학파가 있었다.<sup>2)</sup> 8세기 중엽 이후 의상계 화엄학파는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아 단기간에 불교계의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잡았고, 이후 신라 하대까지 불교계의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였다. 그 결과 9세기 중엽 새롭게 선종이 수용된 시점에는 그들과 대립하는 기성의 옛 불교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선종과 대비된 기성의 옛 불교라는 구조가 의상계 화엄학파를 통일신라 시기 내내 주류적 흐름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8세기 중엽 의상계 화엄학파가 불교계의 주류적 흐름으로 대두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의상계 화엄학파에 대

1) 650년대 元曉와 義相의 중국 유학 시도도 본래는 『瑜伽師地論』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2) 최연식,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 12 (서울:불교학연구회, 2005), pp.254-261 참조.

한 연구가 의상 본인에 대한 연구 이외에는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의상의 문도와 계승자들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도 계보적 연결 자체에 중점이 두어졌고 시기에 따른 의상계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는 물론 현재 전하고 있는 의상계 문헌들이 의상의 저술과 강의록 및 그에 대한 주석서들에 국한되고 있는 자료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의상계 화엄학파를 통일신라 전 시기에 걸쳐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靜態的 이해방식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의상계 화엄학파의 동향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살피는 動態的 연구는 의상계만이 아니라 통일신라 불교 전체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8세기 중엽 의상계의 대두와 관련하여서는 경덕왕대(742-764)에 활동하였던 表訓이 누구보다도 주목된다. 의상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직제자이면서도 8세기 중엽까지 활동하며 후대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수도 경주의 대 사찰에서 활동하며 왕실과 귀족의 지지를 받았던 表訓의 행적은 의상계 화엄학자들 중에서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기존의 의상계 화엄학파에 대한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주목의 대상이었다. 특히 의상 문도들의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김상현 교수는 경덕왕대 佛國寺와 石佛寺(석굴암) 건립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表訓의 화엄사상에 주목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sup>3)</sup> 나아가 그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중대 불교에서 그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하였다.<sup>4)</sup>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의상의 계승자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사상 내용을 만들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며 신라 불교계에서 의상계의 위상을 확대했던 表訓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서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구적 연구를 토대로 8세기 신라 불교계에서 의상계 화엄학파가 대두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表訓의 사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한편 그러한 사상이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 건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3) 김상현, 「石佛寺 및 佛國寺에 표출된 화엄세계관」, 『신라화엄사상사연구』 (서울:민족사, 1991), pp.203-218.

4) 김상현, 「신라 중대 화엄학승 表訓고」, 『한국고대사탐구』 1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이 논문은 김상현 교수의 마지막 유작이기도 하다.

5) 이 글은 본래 2015년 1월 30일에 개최된 故김상현교수추모사업위원회 주최로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故김상현교수추모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화엄의 한국적 전개>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 글이 김상현 교수님이 베풀어주셨던 커다란 학문에 대한 작은 보은이라도 되길 희망한다. 교수님의 명복을 빈다.

## II. 8세기중엽 義相系 화엄학의 대두와 表訓

義相의 귀국 이후 그가 전한 화엄학이 불교계의 중심으로 등장하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8세기 중엽 이전 의상과 그 문도들의 활동은 불교계의 주류적 흐름과는 거리가 있었다. 의상은 귀국 직후 왕실의 특별한 존중을 받았지만 왕실을 비롯한 세속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으며, 불교계 내부에서의 영향력이나 명예 등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귀국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수도 경주를 떠나 경상도 북부 지역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 문도들과 공동체적인 생활을 시작하였고, 얼마 후 그곳에 부석사를 창립하여 화엄사상에 대한 교육과 수행에 전념하였다.<sup>6)</sup> 의상 이후 문도들의 활동 지역도 부석사와 그 주변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의상의 대표적 제자와 손제자들의 활동지는 대부분 부석사와 그 인근의 태백산, 소백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8세기 중엽 이전 의상 문도들이 수도 경주에서 활동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sup>7)</sup>

이렇듯 수도 경주의 불교계와 거리를 두고 있던 의상계 승려들이 갑자기 8세기 중엽에 들어와 불교계의 중심적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의상의 직제자라고 하는 표훈은景德王 대에 수도 경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왕 및 재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의상의 손제자인 神琳도 비슷한 시기에 경주에서 활약하였다. 표훈은 왕실의 원찰이자 일찍이 스승 義相이 출가하였던 皇福寺에서 재상 金大城의 귀의를 받았고,<sup>8)</sup> 나아가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국왕에게 해결책을 요청받는 등<sup>9)</sup> 당대 최고의 고승으로 인정받았다. 김대성은 그를 위해 특별히 佛國寺와 石佛寺를 창건하였는데,<sup>10)</sup> 여기에는 그와 함께 신림이 초청되어 화엄학을 강의하였다.<sup>11)</sup> 불국사는 김대성 사후 왕실의 지속적인 후원 하에 최종 완성되었다. 이후 의상계 승려들은 왕실 및 귀족들과 깊은 유대 관

6) 의상의 귀국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p.99-116 참조.

7) 『三國遺事』 卷4 義解 <義湘傳教>에는 의상이 경주 皇福寺에 머물 때 제자들과 함께 절의 탑을 공중에 떠서 돌았다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의상의 전체 행적이나 기록에 보이는 제자들의 활동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의상이 浮石寺를 창건하여 본격적으로 문도들을 양성하기 이전의 일로 생각된다. 김복순은 아예 이 일을 의상이 행적이 아니라 제자 表訓의 행적이 후대 자료에 잘못 수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복순, 「表訓」, 『한국고대불교사연구』, 서울:민족사, 2002, pp.152-153(原載는 김복순, 「表訓」, 『가산학보』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8)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下 (『韓佛全』4, pp.63上-中)

9) 『三國遺事』 卷2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10) 『三國遺事』 卷5 孝善 <大城孝二世父母>

11) 均如, 『釋華嚴旨歸章圓通鈔』 卷上 (『韓佛全』4, p.125下)

계를 맺으며 불교계의 중심적 인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8세기 중엽 이전까지 의상계 승려들과 왕실의 관계가 거의 언급되지 않던 것과 달리 이후에는 왕실과의 관련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9세기초에 신림의 제자인 順應은 왕실의 후원 하에 海印寺를 창건하였고, 이 사찰은 이후 부석사, 불국사 등과 함께 의상계 승려들의 주된 활동 거점이 되었다. 9세기 중엽에는 의상계 화엄학승인 泐言이 원성왕릉의 수호 사찰이자 왕실의 원찰인 崇福寺 낙성식에 초빙되어 5일 동안 설법하였다. 의상계 화엄학파는 8세기 후반 이후 신라 불교계의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8세기 중엽 이후 의상계가 새롭게 불교계의 주류적 흐름으로 대두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은 신라 불교계의 대표적 인물을 봉안했던 興輪寺 금당의 十聖에 의상과 표훈이 추가로 봉안된 것을 들 수 있다. 興輪寺 금당에는 동쪽에 我道, 厭鬻, 惠宿, 安舍, 義相 등 다섯 명, 서쪽에 慈藏, 惠空, 元曉, 蛇巴, 表訓 등 열 명의 소상이 모셔져 있었다.<sup>12)</sup> 이들의 배치 순서를 보면 다른 동쪽과 서쪽 모두 각기 해당 인물들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비교하면 동쪽의 인물들이 서쪽의 인물들보다 활동시기가 앞선다. 그렇다면 興輪寺 금당의 배치는 동쪽부터 서쪽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향의 전각에서 동쪽이 서쪽보다 우월한 위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쪽의 마지막 인물인 의상의 경우 서쪽의 인물들 대부분 - 표훈만을 제외하고 - 보다 활동시기가 늦다는 문제가 있다. 자장, 혜공, 원효 등은 모두 의상보다 선배이고, 생몰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파(복)도 원효와 그가 친구처럼 지냈고 원효가 직접 그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sup>13)</sup>으로 볼 때 의상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시기 순으로 봉안된 가운데, 의상만이 시기적 순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의상의 소상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 뒤늦게 봉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상과 표훈이 동쪽과 서쪽의 마지막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소상은 다른 인물들의 소상이 이미 봉안된 상태에서 후대에 추가로 봉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봉안 시기는 표훈이 불교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 이후, 아마도 그의 입적 이후일 것이다. 즉 의상은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적 직후에는 신라를 대표하는 성인으로 추앙받지 못했지만 제자인 표훈이 불교계의 중심적 인물로 대두된 뒤에야 성인으로서 다른 선배 고승들과 함께 興輪寺 금당에 봉안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의상과 표훈이 興輪寺 금당에 봉안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표훈이 입적한 8세기 후반에서 신라

12) 『三國遺事』 卷3 塔像 <興輪寺金堂十聖>

13) 『三國遺事』 卷4 義解 <蛇福不言>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9세기말 이전의 시기일 것이다. 그 시기에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신성한 인물들 속에 뒤늦게 표훈과 그의 스승인 의상이 봉안되었다는 것은 당시 의상계 화엄학파가 불교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였고, 그 중심에 표훈의 활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세기 중엽 이후 의상계 화엄학파의 대두는 의상계만이 아니라 『화엄경』과 화엄교학 전반의 위상 강화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753년 심한 가뭄을 당하였을 때 유식학승려 太賢을 궁중에 불러 『금광명경』을 강의하였더니 궁중의 우물이 솟구쳤는데, 다음 해 여름에 다시 가뭄이 들었을 때 황룡사의 화엄학승려를 불러 『화엄경』을 강의하게 하였더니 동해바다가 넘쳤다는 『삼국유사』의 전승은<sup>14)</sup> 『화엄경』이 기존에 불교계에서 중시되었던 『금광명경』을 제치고 가장 중시되는 경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로 이해되는데, 원성왕 때에도 황룡사 승려를 불러 『화엄경』을 50일 동안 강의하게<sup>15)</sup> 한 것으로 보아 궁중에서의 『화엄경』 강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8세기 중엽 이전에는 궁중에서의 『화엄경』 강독 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표훈이 경주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화엄학승 緣起는 전라도 지역에서 경주 귀족의 후원을 받아(華嚴寺를 창건하고) 華嚴經을 필사하였고,<sup>16)</sup> 비슷한 시기에 전라도 남쪽의 장흥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元表 역시 왕실의 후원을 받아 사찰을 창건하였다.<sup>17)</sup> 또한 화엄학 관련 저술도 다수 찬술되었다. 8세기 중엽 이전에

14) 『三國遺事』 卷4 義解 <賢瑜伽海華嚴>

15) 『화엄경』을 50일간 강의한 것은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던 『화엄경』(晉本)이 현재와 같은 60권본이 아니라 50권본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초 均如가 이용한 화엄경도 50권본이었다(『釋華嚴旨歸章圓通鈔』 卷上(『韓佛全』4, p.120中) “就略本中 若五十卷經疏 非是八十卷經疏 或反此等 此亦爾也”, 『韓佛全』4, 82c; “五十卷經 有三十四品 八十卷經 有三十九品者 就晉本經 舍那品開現相等五品爲三十九 合此五品 則三十四品 加晉經所無十定一品 合三十五品 餘三品 未傳此土 … 有前分花嚴 有後分花嚴 此土所傳五十卷經 是前分也.” 決言이 승복사에서 5일간 강의한 것도 『화엄경』을 10권씩 강의한 것일 수 있다.

16) 754년의 華嚴經 筆寫記에는 ‘成檀越新羅京師順口’라는 후원자 이름을 기록하다가 중간에 삭제하였다(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서울대출판부, 2000, p.468). 경주 귀족인 ‘順口’의 후원하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중간에 모종의 이유로 이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화엄경 사경은 救禮의 華嚴寺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경 작업에 참여한 인물들 중에 전라도 지역 인물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지역의 사찰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17) <寶林寺普照禪師彰聖碑> (한국역사연구회 나말여초연구반, 『역주한국고대금석문(下)』, 해안, 1996, p.58)

찬술된 화엄학 관련 문헌으로는 의상이 찬술한 『一乘法界圖』와 그의 문도들이 정리한 강의록, 그리고 원효의 『화엄경소』와 『화엄경종요』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인데,<sup>18)</sup> 8세기 중엽 이후에는 신림과 그 문도들에 의해 여러 종류의 『일승법계도』 주석서들을 비롯하여 『十句章』, 『觀釋』 등이 찬술되었고, 緣起의 『華嚴經開宗決疑』, 『화엄경요결』, 『華嚴經眞流還源樂圖』, 表員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梵如의 『화엄경요결』 등이 찬술되었다. 또 9세기 후반 황룡사에서 활동한 珍嵩은 의상과 지엄, 법장 등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들을 지었다. 그밖에도 저자를 알 수 없는 화엄사상 관련 문헌이 다수 저술되었고, 후대 문헌에 인용된 『古記』나 『古辭』 등도 내용상 8세기 후반 이후에 찬술된 것들이다.

이처럼 8세기 중엽 이후 의상계 화엄학파의 대두 및 그에 기초한 『화엄경』과 화엄교학의 위상 강화 흐름의 중심에는 表訓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서 중앙에서 활동한 화엄학승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직접 관계를 맺고 후원한 인물들이 경덕왕과 김대성 등 당시 신라 사회의 최고위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국사라는 거점 사원의 확보는 의상계 화엄학파의 중앙 진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훈의 활동으로 인해 의상계 화엄학이 본격적으로 중앙에 소개될 수 있었고, 그를 배경으로 의상계 교학을 중심으로 한 『화엄경』과 화엄교학 전반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표훈이 어떤 계기로 수도 경주에서 활동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김대성에게 가르침을 베푼 장소가 皇福寺였던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이곳에서 화엄학을 강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황복사에서의 강의로 명성을 얻으면서 재상인 김대성의 귀의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국왕과도 연결되면서 불교계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재상과 국왕의 주목을 받고 그들의 후원을 받게 된 데에는 그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삼국유사』에서는 그가 天宮을 왕래하였다고 하며,<sup>19)</sup> 경덕왕은 이에 주목하여 그에게 天帝에게 왕자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는 天宮에 오간 행적만 이야기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 외에도 여러 특별한 능력을 가진 神僧으로서 명망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흥륜사 금당에 十聖으로 모셔지고, 그 이후에 신라에서 聖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전승도 신승으로서의 그의 위

18) 法藏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勝詮의 제자 可歸가 찬술한 『心源章』도 8세기 중엽 이전에 찬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 『三國遺事』 卷4 義解 <義湘傳教> “(表)訓, 曾住佛國寺, 常往來天宮”

상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0)</sup> 이처럼 신이한 능력을 가진 승려로 유명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학문연구에만 몰두하는 학승이나 세속과 거리를 두고 개인적 수행에만 몰두하는 은거승이 아니라 대중과 널리 교류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덕왕은 중대의 국왕으로서 드물게 승려들과의 교류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는데, 그가 교류한 승려들은 대부분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대중과 교류하던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표훈 역시 그러한 성격의 승려로 볼 수 있는 바, 표훈이 스승이나 동문 선배와 달리 부석사 및 주변 지역에서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수도에 나와 일반인들과 접촉하고 교화하는데 노력하였던 배경에는 이전과 달라진 경덕왕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sup>22)</sup> 경덕왕대에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대중들의 관심 속에 부각된 여러 승려들 중에서도 표훈은 왕실과 귀족층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가 수학하고 발전시킨 의상계 화엄사상이 8세기 후반 이후 신라 불교계의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 III. 表訓의 一乘世界論 : 五重海印 · 五重觀 · 五重世界說

8세기 중엽 불교계의 중심적 인물로 부상한 표훈은 사상적으로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제시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그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후대의 자료에 의할 때 그에게 독자적인 저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의 가르침이 후대의 화엄학 문헌들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표훈에 대한 전문적 연구들에서는 후대 문헌에 보이는 표훈의 화엄학 관련 이론들을 모아 그의 화엄사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sup>23)</sup>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표훈이 이야기한 여러 이론들을 나열하여 제시하는데 그치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

20) 702년에 입적한 의상에게 직접 배웠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경덕왕 중기 즉 750년대에는 그의 나이가 적어도 70세 이상이었을 텐데 고령에도 활발한 교화활동을 벌이는 사실도 그의 신이함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21) 경덕왕이 교류한 승려들 및 그 교류 양상에 대해서는 전보영,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9 (한국사학회, 2013)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22) 경덕왕대의 다양한 대규모 佛事와 신이한 고승들의 활약이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3) 김복순, 앞의 논문 「표훈」, pp.138-144; 김상현, 앞의 논문, 「신라중대 화엄학승 표훈고」, pp. 260-268.

였다. 다만 불국사와 석굴암의 사상적 배경을 검토하는 글에서 김상현 교수는 표훈이 제시한 여러 이론 중 三本定과 國土海-世界海 설명에 주목하고 이들을 연결시켜 불국사와 화엄사 개창의 이론적 기반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sup>24)</sup> 표훈의 이론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이론에 주목한 것이지만 표훈의 이론들을 유기적으로 검토하려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여러 문헌에 전하는 표훈의 이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한 곳에서 이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표훈은 나름대로 『화엄경』에 의거한 깨달음과 수행, 그리고 佛國土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훈이 제시한 이론들 중에서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은 五重海印·五重觀·五重佛國土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5중해인은 부처의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중생들에게 설해지는 과정을 忘像海印·現像海印·佛外向海印·普賢入定海印·普賢出定海印 등 다섯 단계의 定[三昧]로 설명한 것으로 8세기 중엽 이후 의상계 화엄학파의 중요한 이론이 되었다. 『법계도기총수록』과 균여의 저술 여러 곳에서 이 五重海印에 자체 혹은 그에 기초한 여러 이론들, 그리고 다른 이론과 이 5중해인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sup>25)</sup> 『화엄경』에서는 큰 바다에 일체 사물이 그대로 비치는 것처럼 부처의 지혜의 바다에는 일체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비친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에 기초하여 화엄교학에서는 一乘 즉 『화엄경』의 가르침이 海印定[海印三昧]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고 나아가 해인정[해인삼매]을 화엄일승교의 根本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sup>26)</sup> 의상의 경우도 『일승법계도』에서 海印三昧를 형상화한 法界圖의 모습으로 진리를 표현하고,<sup>27)</sup> 이 세계의 참된 모습이 海印三昧를 통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28)</sup> 화엄학파, 특히 의상계가 『화엄경』만이 온전한 참된 가르침이고 다른

24) 김상현, 앞의 책 『신라화엄사상사연구』, pp.205-209.

25) 佐藤厚, 「大記の五重海印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44-2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1996)와 木村清孝, 「『十句章圓通記』について」, 『華嚴學研究』創刊號 (東京: 華嚴學研究所, 1987)에서는 각기 의상의 『법계도기총수록』 및 균여의 『십구장원통기』에 제시된 五重海印說에 대하여 검토, 설명하고 있다.

26)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78), pp.488-496.

27) 『一乘法界圖』(『大正藏』45, p.711上), “問何以故依印。答欲表釋迦如來教網所攝三種世間。從海印三昧。槃出現顯故”

28) 『一乘法界圖』(『大正藏』45, pp.712下-713上) “二就利他行中。印者約喻得名。何者。是大海極深。明淨徹底。天帝共阿修羅鬪靜時。一切兵眾。一切兵具。於中離現了了分明。如印顯文字。故名海印。能入三昧亦復如是。窮證法性。無有源底。以究竟清淨。湛然明白。三種世間於

경전들의 가르침은 불완전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것도<sup>29)</sup> 『화엄경』만이 해인삼매에서 드러난 세계의 참모습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고, 나머지 경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5중해인설은 바로 이러한 화엄학파에서 이야기하는 根本定으로서의 海印定, 즉 모든 진리의 근원이자 화엄경의 근원이 되는 해인정[해인삼매]을 부처의 깨달음의 증득에서부터 중생의 설법까지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한 것이다. 처음 부처가 해인삼매에 들어 진리를 증득하여[망상해인], 스스로 관조하고[현상해인], 이를 중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밖으로 드러내고[불외향해인], 이를 삼매 상태에 든 보현보살이 받은 후[보현입정해인], 삼매에서 나와[보현출정해인], 중생들에게 설법한다[普賢菩薩說分]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보현보살의 설법[普賢菩薩說分]이 바로 화엄경이고, 그 이전 단계의 다섯 해인, 즉 5중해인은 화엄경의 근원이 되는 해인정[해인삼매]을 계기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5중해인은 여러 문헌들에서 의상의 스승인 智儼이 제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엄의 현존 저술 중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후대의 중국 화엄학에서는 이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보이지 않고 있어 실제 지엄이 제시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이 5중해인설은 지엄에 가탁하여 신라 의상계 화엄학파에서 창출한 이론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상 표훈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훈이 제시한 이론 중에서 이 5중해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海印定·佛華嚴定·師子奮迅定 등을 이야기한 三本定이다. 균여의 『십구장원통기』에 의하면 표훈이 황복사에 있을 때에 김대성이 찾아와 三本定에 대하여 배움을 청하자 『화엄경』 서두 부분의 경전 내용을 들어서 ‘一時佛’ ‘始成正覺’ ‘在師子座’ 등이 각기 海印定·佛華嚴定·師子奮迅定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sup>30)</sup>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균여가 5중해인과 3본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균여는 海印定·佛華嚴定·師子奮迅定에 대하여 각기 5중해인 중의 忘像海印·現像海印·佛外向海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sup>31)</sup> 즉 3본정은 5중해인 중의 부처의 경지에 해당하는 앞의 세 가지 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균여는 또한 이 3본정을 각기 證本·說本·教本, 즉 ‘깨달음의 근본·설법의 근본·구체적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하여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5중해인은 본래 단일하게 이야기되던 해인정[해인삼매]을

中顯現。名曰海印”

29) 의상계의 經典觀에 대해서는 최연식, 『佛華嚴經問答』의 三乘極果廻心說 연구, 『불교학연구』30 (불교학연구회, 2011), pp.352-359 참조.

30)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下(『韓佛全』4, p.63上-中)

31)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下(『韓佛全』4, p.62中)

각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인데, 3본정 역시 해인정을 분류한 것으로서 이와 상통하는 것이다. 양자는 본래 나누어져 있지 않던 해인정[해인삼매]을 단계별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화엄교학에서는 부처가 해인정의 상태에서 깨달은 것을 중생에게 드러낸 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해인정에 대한 논의는 최종적으로 중생에게 설해지는 것까지 이야기될 때 비로소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표훈의 3본정도 본래 부처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3본정에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는 단계를 추가하면 그것이 곧바로 5중해인이 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5중해인과 표훈의 3본정은 동일한 체계를 가진, 동질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후술하듯이 표훈은 수행자가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방법[觀]과 진리의 세계를 모두 다섯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해인을 다섯 단계로 구분한 오중해인 역시 그가 창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설혹 5중해인설의 구체적 용어들이 표훈 본인의 창안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후대에 정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5중해인의 기본적 개념은 표훈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2)</sup>

표훈이 제시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수행자가 세상의 존재 양태를 인식하는 방식을 因緣觀·緣起觀·性起觀·無住觀·實相觀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五重觀이다.<sup>33)</sup> 인연관은 모든 존재들이 여러 인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고[我是諸緣所成法諸緣以我得成緣], 연기관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불변의 본질이 없고 각 존재를 구성하는 여러 인연들도 마찬가지로 불변의 본질이 없음을 아는 것이고[以緣成我我無體 以我成緣緣無性], 성기관은 모든 존재들의 있음과 없음이 다르지 않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아는 것이고[諸法有無元來一 有無諸法本無二], 무주관은 있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고 파악하는 것이고[有時非有還同無 無時非無還同有], 실상관은 모든 존재가 본래 변화가 없고, 존재를 파악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諸法本來不移動 能觀之心亦不起]이다. 이러한 5중관은 5

32) 五重海印은 『화엄경』 즉 一乘의 가르침이 海印定에서 비롯되었음을 계기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와 달리 『화엄경』만이 아니라 三乘의 가르침도 海印定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다른 형태의 - 역시 智儼이 창안하였다고 전하는 - 5海印(大圓鏡智海印(大乘始教)·一心眞如海印(大乘終教)·不二實相海印(頓教)·世界海海印·國土海海印) 및 여기에 일승의 因海印을 추가한 6海印說도 의상계 화엄학파에서 이야기되었다(『法界圖記叢錄』 卷下之一, 『大正藏』45, p.751上). 均如는 五重海印과 이 별도의 6海印을 결합하고, 여기에 다시 小乘海印 혹은 不可說不可說을 추가하여 十海印을 제시하기도 하였다(『十句章圓通記』 卷下, 『韓佛全』4, p.63下-64上).

33) 『法界圖記叢錄』 卷上之一 (『大正藏』45, p.721上)

중해인과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서, 5중해인이 부처의 깨달음이 중생에게 인식되는 과정을 계기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5중관은 중생[수행자]이 점차적으로 존재의 참모습 즉 진리를 파악해 가는 과정을 계기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중관의 각 단계는 대체적으로 5중해인의 각 단계와 대응됨을 알 수 있는데, 『법계도기총수록』 중의 「대기」에서 法界圖詩 30句를 5중해인과 5중관 각각에 配對한 것을 보면,<sup>34)</sup> 망상해인과 현상해인은 실상관, 불외향해인은 무주관, 보현입정해인은 성기관, 보현출정해인은 연기관과 인연관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표훈은 이 5중관에 미치지 못하는 인식으로서 별도로 遍計(觀)을 들고 있다. 즉 『일승법계도』에서 제시한 10門의 因緣觀, 즉 인연을 파악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면서 인연, 연기, 성기, 무주와 함께 遍計를 들고 있다.<sup>35)</sup> 이때의 변계는 물론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는 3性 중 遍計所執性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인연 등 5중관의 올바른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단계의 인식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의상은 『일승법계도』의 數錢法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因緣과 緣起를 구별하여 인연은 세상의 서로 다른 존재들이 인연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는 俗諦의 본질이고, 緣起는 본래 차이가 없는 각각의 존재들이 서로 서로 相即相融함을 보여주는 第一義諦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 후, 수전법은 遍計의 事錢으로 依他的 因緣緣起錢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sup>36)</sup> 지론학과의 인연-연기의 구별과 유식학의 遍計所執-依他起-圓成實의 3性說을 수용하여 사물들이 서로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인 遍計(所執)와 사물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올바른 인식인 依他(起)를 구분한 후, 후자를 다시 인연과 연기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계승한 표훈의 선배 眞定은 존재의 이해방식을 遍計·因緣·道理 등 셋으로 구분하고 있는데,<sup>37)</sup> 의상의 변계-의타(인연·연기) 구분법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훈의 5중관은 바로 이러한 의상과 그 초기 문도들의 인식 방법에 대한 구분법

34) 『法界圖記叢髓錄』 卷上之一 (『大正藏』45, pp.720下-721上)

35) 『法界圖記叢髓錄』 卷下之一 (『大正藏』45, 747下)

36)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7上-中) “問.因緣與緣起何別.答.亦別亦同.所謂別義者.因緣者隨俗義別.即是因緣相望.顯無自性義.正俗諦體也.緣起者隨性無分別.即是相即相融.顯平等義.正隨第一義體也.俗諦無自性故.順第一義.是故經云.隨順觀世諦.即入第一義諦.即其也.…上來數錢法者.且依遍計事錢.顯示依他因緣緣起錢也.亦可依指示顯生一切諸法.終不可得”

37) 『法界圖記叢髓錄』 卷下之一(『大正藏』45, p.747下). 『일승법계도』에서 이야기한 10門의 因緣觀을 遍計·因緣·道理로 구분한 것인데, 道理는 의상이 말한 緣起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을 더 자세히 분화, 발전시킨 것이다.<sup>38)</sup>

표훈이 제시한 5중관은 후대의 화엄학자들에게 익숙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구체적인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 5중관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식 방식으로서 遍計와 依他를 추가하여 遍計堂因·緣堂·緣起堂·性起堂·無住堂·實相堂<sup>39)</sup> 혹은 遍計錢·依他錢·因緣錢·緣起錢·性起錢·無住錢·實相錢<sup>40)</sup> 등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sup>41)</sup>

표훈은 『화엄경』의 불국토에 대해서도 華藏世界·世界海·國土海·不可說·不可說不可說 등 다섯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sup>42)</sup> 화장세계, 세계해, 국토해 등은 『화엄경』에서 이야기되는 불국토의 양상인데, 여기에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不可說(세계)과 不可說不可說(세계)을 더하여 다섯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섯 불국토와 5중해인의 관계에 대해서 균여는 해인정(=망상해인)에서 국토해를 증득하고, 불화엄정(=현상해인)에서 국토해를 說하며, 사자분신정(=불외향해인)에서 세계해를 설하고, 보현이(入定하여 세계해를 경험한 다음 出定하여) 華藏世界를 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43)</sup> 다섯 불국토가 5중해인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5중해인·5중관·5중 불국토설은 모두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세계, 즉 일승의 세계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단계적, 계기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증득된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5중해인과 그에 조응하여 일승의 수행자가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단계인 5중관, 그리고 그 깨달음의 세계에 대응되는 불국토의 다섯 가지 모습들이 서로 대응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sup>44)</sup> 이런 점에서 표훈은 『화엄경』에서 이야기되는 일승의 세계에 대하여 다양한

38) 表訓은 眞定이 法界圖詩를 理事具德門·事融現理門·修行增長門 등 3門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도 不動建立門을 추가하여 4門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法界圖記叢髓錄』 卷上之一, 『大正藏』45, p.721上)

39) 『法界圖記叢髓錄』 卷上之二 (『大正藏』45, p.735中)

40) 『法界圖記叢髓錄』 卷下之二 (『大正藏』45, p.762上)

41) 依他를 因緣에 미치지 못하는 인식으로 파악한 것은 일부 학자[南嶽觀公]에게서 보이는 것으로 의상계에 널리 퍼진 인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승법계도』의 ‘依他因緣緣起錢’을 ‘의타인 인연·연기전’으로 해석하지 않고 ‘의타·인연·연기전’으로 나누어 해석한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표훈의 5중관에 영향 받아 인연(관)과 연기(관)를 구별하면서 의타(관)도 별개의 인식 방식으로 구별한 것으로 생각된다.

42)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下(『韓佛全』4, p.62下). 여기에서는 다섯 세계와 함께 娑婆世界가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娑婆世界는 『화엄경』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낮은 차원의 세계이다.

43)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下(『韓佛全』4, p.62下)

44) 다만 5중해인, 5중관, 5중불국토의 각 단계들이 서로 1대 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측면에서 계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훈이 이처럼 계기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을 한 것은 스승 의상의 화엄 일승사상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하는 동시에 깨달음과 수행을 정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다고 해석된다. 의상은 일승과 삼승을 구별하고 그 차이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 스승 智儼 및 동문 法藏과 달리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승의 세계 자체에 집중하고 화엄의 수행을 통하여 그 일승의 세계를 증득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표훈은 그러한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 일승의 세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의상과 초기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수행에 만족하였던 것과 달리 의상의 제자 중 가장 후배인 표훈은 스승의 사상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하여 의상계 수행 공동체만이 아니라 보다 널리 이를 선양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훈이 스승의 화엄 일승사상을 발전시켜 체계적인 일승세계론을 수립한 것과 부석사를 떠나 수도 경주에서 교화한 것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 IV. 불국사·석굴암(석불사) 건립의 사상적 배경

8세기 중엽 김대성에 의해 건립된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는 통일신라시기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일 뿐 아니라 사찰의 구성과 형태에 있어 특이함이 적지 않아 그 건립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법화사상,<sup>45)</sup> 밀교사상,<sup>46)</sup> 화엄사상,<sup>47)</sup> 유가사상,<sup>48)</sup> 화엄과 유식의 종합,<sup>49)</sup> 화엄과 밀교, 유식의 종합<sup>50)</sup>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최근에는 忉利天爲母說法을 형상화한

45) 민영규, 「석굴암조각의 교리배경」, 『고고미술』4 (한국미술사학회, 1961)

46) 신현숙,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의 사상적 배경」, 『전통문화』6·7(전통문화사, 1987), pp.104-111; 홍윤식, 「신라사회와 만다라」, 『한국불교의 재조명』(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3), pp.171-174.

47) 김상현, 「石佛寺 및 佛國寺에 표출된 화엄세계관」; 배진달, 『연화장세계의 도상학』(일지사, 2009), pp.71-153.

48) 문명대, 「불국사 불교미술의 종합적 연구(1)」, 『강좌미술사』12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pp.12-15.

49) 김남윤, 「불국사의 창건과 그 위상」,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7), pp.44-47.

50)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동국대출판부, 1989), p.372; 이만, 「불국사건립의 사상적 배경」,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것이라는 의견도<sup>51)</sup> 제시되었다. 하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아직 충분한 이해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각각의 견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전하는 문헌 자료의 내용에 의거할 때 석굴암의 건립에는 표훈의 역할이 중요하였다고 생각된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찰로서 여기에는 건립 주체가 가지고 있던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상적 입장이 표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 건립 주체인 김대성의 사상적 스승이 표훈이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서는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를 창건한 후 신림과 표훈 두 성사(聖師)를 모셔 각각에 주석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상의 직제자인 표훈과 손제자인 신림 두 사람을 모신 것은 불국사와 석불사가 의상계 화엄학파의 거점 사찰로서 창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훈에게서 의상계 화엄사상을 배운 김대성이 의상계 화엄학파의 거점 사찰로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였다면, 그곳에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는 당연히 의상계의 사상, 특히 표훈의 사상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불국사는 김대성 사후에 왕실이 이어서 후원하여 사찰을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이 단순히 김대성 개인의 발원에 의한 개인적 원찰이었다면 국가가 지속적으로 후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이 사찰이 단순히 김대성의 원찰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사찰이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표훈의 활동에 의해 의상계 화엄학파는 이미 경주 불교계의 중심적 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왕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되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은 처음에는 김대성 개인에 의해 건립이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그곳이 불교계에서 주류적 위치로 부상하고 있던 의상계의 거점 사찰이었기 때문에 창건주인 김대성 사후에도 국가의 지속적인 후원 하에 완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불국사와 석굴암 건립 당시 표훈은 의상계의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의상계의 경주 지역에서의 진출도 그의 활약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의 사상이 당시 의상계의 사상을 대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불국사 및 석굴암 건립의 사상적 기반으로 화엄사상에 주목한 연구들에서는 당연히 표훈의 사상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상현 교수는 표훈이 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 건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김대성이 표훈에게 배운 三本定에 입각하여 부처의 內證인 해인정에서 드러나는 國土海를 표현한 것이 석불사(석굴암)이고, 부처의 外化인 사자분신정에서 드러나는 世界海를 표현한 것

1997), pp.16-27.

51) 남동신, 「천궁으로서의 석굴암」,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4), pp.85-90.

이 불국사라고 설명하였다.<sup>52)</sup> 배진달 교수 역시 김대성이 표훈의 가르침을 받은 것에 주목하여 불국사는 전체적으로 연화장세계를 표현한 것이고, 석굴암 내부의 도상들도 『화엄경』과 화엄교학에 의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53)</sup> 이처럼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 건립의 사상적 배경을 표훈의 화엄사상에서 찾는 것은 매우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기존의 표훈의 화엄사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앞 장에서 검토한 표훈의 일승세계관과 연관지어 이해할 때 불국사와 석굴암의 사상적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은 각기 별개의 사찰이 아니라 단일한 계획 속에서 건립된 대규모 도량의 일부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 건립의 토대가 된 사상적 배경을 생각할 때에도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을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 양자를 포괄한 전체적인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이 의상계의 거점 사찰로서, 표훈의 사상이 전체적 설계의 기본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국사와 석굴암이 그의 일승세계관의 어떠한 측면을 표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5중해인·5중관·5중불국토설 등으로 이루어진 표훈의 일승세계관은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승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사상에 기초하여 건립된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은 바로 그러한 일승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표훈의 일승세계론은 일승의 세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국사와 석굴암은 두 개의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표훈의 일승세계론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표훈의 일승세계론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5해인 중 망상해인·현상해인·불외향해인 등 부처 영역의 세 해인은 비록 구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부처의 내면세계로서 동질적이고, 자연

52) 김상현, 앞의 논문, 「石佛寺 및 佛國寺에 표출된 화엄세계관」. 이 글에서는 비로전, 대웅전, 극락전으로 이루어진 불국사의 구성이 각기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 석가의 영산불국,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53) 배진달, 앞의 책, 『연화장세계의 도상학』. 그는 불국사의 두 석탑을 각기 해인정(서석탑)과 사자분신정(동석탑)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극락전과 대웅전의 병립은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와 연화장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석불사(석굴암)에 대해서는 8세기 중엽 당시 일본의 신라 침공 계획에 대비하여 일본의 침공로 상에 있는 토함산 정상에 조성한 화엄불국이라고 하였다.

히 연결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보현입정해인과 보현출정해인은 앞의 세 가지 해인에 연결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의 연결로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5불국토설에서도 국토해와 세계해는 동질적이지만 보현이 경험하고 설하는 화장세계는 이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5중관의 경우도 깨달음의 경지에 해당하는 실상관·무주관과 수행자의 경지에 해당하는 성기관·연기관·인연관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표훈의 일승세계관의 여러 요소들을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으로 구분하면, 5중해인에서는 해인정에서 불외향해인까지와 보현입정해인 이하가 구분되며, 5중관에서는 실상·무주관과 성기관 이하가 구분되고, 5중불국토에서는 세계해까지와 화장세계가 구분된다.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의 구분은 또한 근원적인 세계와 현상적인 세계의 구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토함산 아래에 일반에게 공개된 불국사와 토함산 정상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석굴암(석불사)은 바로 이러한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 근원적인 세계와 현상적인 세계를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는 삼매에 든 상태로 있으며 설법하지 않고,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가 부처의 삼매의 경지를 경험한 후 삼매에서 깨어나 중생들에게 설법한다. 비록 부처의 삼매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

석굴암이 표훈의 일승세계관 중에서 부처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음은 석굴암의 본존이 5중해인 중의 처음의 세 해인, 즉 망상해인·현상해인·불외향해인을 형상화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석굴암의 본존은 인도 보드가야 대각사에 있는 석가 최초 성도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sup>54)</sup> 그런데 이러한 석가 최초 성도의 모습은 바로 『화엄경』의 서두에 나오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의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그것은 표훈이 김대성에게 알려준 3본정의 모습을 통합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훈이 황복사에 있을 때에 김대성이 찾아와 三本定에 대하여 배움을 청하자 『화엄경』 서두 부분의 경전 내용을 들어서 ‘一時佛’ ‘始成正覺’ ‘在師子座’ 등이 각기 해인정·불화엄정·사자분신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sup>55)</sup>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합한 ‘一時佛始成正覺在師子座’의 모습, 즉 ‘한때 부처님이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사자좌에 앉아계신’ 모습이 바로 석굴암 본존의 모습인 것이다. 석굴암의 중심(이자 전부)인

54) 김리나, 「인도불상의 중국전래고 - 보리수하 금강좌진용상을 중심으로-」, 『한우근박사정년 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pp.737-752; 강우방, 「석굴암 본존의 도상 小考」, 『미술자료』35 (국립중앙박물관, 1984), p.55.

55)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下(『韓佛全』4, p.63上-中)

본존상은 다름 아닌 오중해인 중 부처의 영역인 망상해인(해인정)·현상해인(불화엄정)·불외향해인(사자분신정)을 통합하여 형상화한 것이었다. 본래 부처의 내증의 세계인 세 가지 삼매는 형상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김대성은 표훈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이를 부처가 처음 깨달음을 얻은 직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김대성이 표훈에게 찾아가 3본정의 가르침을 청한 것은 어쩌면 바로 석굴암을 어떻게 형상화할지를 문의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석굴암이 5중해인, 5중관, 5중불국토 중에서 부처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음은 석굴의 모습으로 감추어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5중해인에서 처음 의세 해인은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 부처 내면의 영역으로서 그것은 일반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없고 감추어진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야 한다. 석굴암이 일부러 돌을 쌓아서 석굴의 모습을 취한 것은 인도나 중국의 석굴사원을 모방한 것이라기보다 -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 부처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석굴암과 대칭되는 불국사는 보현의 영역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훈의 일승세계론 중에서 보현의 영역은 보현입정해인과 출정해인, 성기관 이하의 인식 방법, 그리고 화장세계에 해당하는데, 이중 불국사는 특히 (연)화장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국사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요소들, 그리고 대웅전, 극락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불전들로 구성된 구조는 (연)화장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연)화장세계는 『화엄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정토로서 그 안에 다양한 불국토를 포괄하고 있는 정토들의 정토, 궁극적 정토인데,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구름다리와 특별한 모습의 석탑으로 장식된 불국사는 바로 그러한 (연)화장세계를 형상화한 것이었다.<sup>56)</sup> 한편으로 보현의 영역은 보현이 삼매에서 나와 언어로 표현한 세계로서 중생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세계이다. 토함산 산자락이라는 불국사의 위치는 산정에 위치한 부처 영역의 석굴암과 달리 중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단일한 세계, 즉 일승의 세계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동일한 지역에 일승의 세계 중의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을 멀리 배치함으로써 해서 일승으로서의 동질성과 함께 부처와 보현의 이질성을 아울러 나타

56) 신라하대의 문인인 崔致遠의 詩에서도 불국사의 명칭 ‘華嚴佛國寺’의 ‘華嚴’이 화장세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다.(『圓宗文類』 卷22 <華嚴佛國寺阿彌陀佛畫像讚> (『韓佛全』4, p.647中) “華嚴寓目瞻蓮藏 佛國馳心係安養”)

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불국사와 석굴암을 포괄하고 있는 토함산은 바로 일승의 세계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성이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함산을 일승의 세계로 상정하고 그곳에 부처의 영역으로서의 석굴암과 보현의 영역으로서의 불국사를 건립하였다고 이해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일승의 세계이므로 석굴암과 불국사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아니 서로 연결되어야만 일승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이 단절되면 부처의 깨달음이 중생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 그런데 양자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보현이다. 보현이 삼매에 들어가[入定]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경험한 후 삼매에서 깨어나[出定] 이를 중생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서로 떨어져 있는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보현이 부처의 영역에 나아가 삼매에 들어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국사에 머물며 天宮에 왕래하였다는 표훈의 모습은<sup>57)</sup> 바로 그러한 보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표훈이 왕래한 天宮은 석굴암을 가리킨 것으로,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토함산 산정을 천상 세계로 표현한 것이다. 토함산 산정에 있는 석굴암은 당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먼 ‘별세계’였는데,<sup>58)</sup> 이곳에 표훈이 왕래한 것은 그곳이 보현이 삼매에 들어가 부처의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현은 보현보살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화엄의 일승수행자도 가리킨다. 보현행자, 즉 일승수행자로서 표훈은 부처의 영역에 나아가 삼매에 들어 부처의 깨달음을 경험하고, 지상에 내려와 경험한 바를 중생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국사와 석굴암을 오가는 보현행자로서의 수행은 표훈 본인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문도들의 수행방법으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석굴암은 부처의 영역인 동시에 보현이 삼매에 드는 보현의 영역이기도 하다. 항상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보현, 즉 일승행자가 찾아와 삼매에 들어 부처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석굴암 본존은 후실의 중앙이 아닌 조금 뒤로 물러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간의 균형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동시에 그 본존의 앞에 앉아 삼매에 들어갈 보현(행자)의 공간을 배려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현행자가 본존의 앞에 앉아 삼매에 들었을 때 석굴암의 온전한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다.

57) 『三國遺事』 卷4 <義湘傳教> “訓, 曾任佛國寺 常往來天宮”

58) 석굴암의 지리적 위치와 전통시대의 접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동신, 「천궁으로서의 석굴암」, pp.97-98 참조.

## V. 맺음말

지금까지 8세기 중엽 신라 불교계에서 의상계 화엄학파가 중심적 위치로 대두하는 모습과 그러한 의상계의 대두를 주도하였던 표훈의 행적과 화엄사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표훈의 일승세계관에 입각하여 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김대성이 건립한 불국사와 석굴암(석불사)의 사상적 배경을 검토해보았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부석사와 인근 지역에서 개인적 수행에 집중하던 의상계 화엄학파는 8세기 중엽 이후 수도에서도 활발하게 활약하면서 불교계의 중심적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경주의 황복사에서 스승 의상의 화엄사상을 구체화하여 설법했던 표훈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상은 부처가 해인삼매에서 깨달은 진리가 보현보살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 『화엄경』인데, 그것은 일상적 언어가 아니라 법계연기적 언어로 표현되었으므로, 수행자들은 명상을 통하여 법계연기적 언어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화엄경』을 제대로 이해하여 깨달음에 이르라는 가르침을<sup>59)</sup> 제시하였었다. 표훈은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승세계설을 제시하였다. 즉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 수행자의 인식의 발전과정, 부처의 깨달음과 수행자의 인식의 경지에 대응되는 불국토의 모습들을 계기적으로 구분하는 5중해인·5중관·5중불국토의 이론을 제시하고 이들을 종합화하였다. 이러한 일승세계설은 의상계의 화엄사상이 불교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찍이 표훈에게서 화엄을 배웠던 김대성은 토함산에 표훈의 일승세계설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사찰을 만들고 그곳을 표훈과 의상계 화엄학자들을 위한 거점 사찰로 제공하였다. 표훈이 제시한 5중해인·5중관·5중불국토 등은 크게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토함산정에 위치한 석굴암(석불사)과 산기슭에 자리잡은 불국사는 각기 부처의 영역과 보현의 영역을 표현한 것이었다. 부처의 정각 직후의 모습을 형상화한 석굴암의 본존은 5중해인 중 부처의 삼매인 3본정을 상징하는 경전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다양한 불국토와 이상세계의 모습으로 장식한 불국사는 5중불국토 중 보현의 영역인 (연)화장세계를 묘사한 것이었다. 김대성은 이처럼 일승세계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석굴암과 불국사를 건립함으로써 토함산을 일승의 세계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히 검토

59) 의상의 경전관 및 수행법에 대해서는 최연식, 「의상의 불교관과 『일승법계도』의 사상」, 『제9회 의상화엄사상학술대회 자료집』 (부석사 화엄사상연구원, 2014), pp.49-62 참조.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표훈은 8세기 중엽 사상계의 변화와 석굴암과 불국사라는 새로운 불교문화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오랜 기간 사상사에서 드러나지 못하였다. 아마도 9세기 중엽 이후의 의상계 화엄학파의 쇠퇴 과정 속에서 그 위상이 잊어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10세 전반에 균여가 의상계 화엄사상을 새롭게 정비하였지만, 전통적 사상의 계승보다도 법장과 징관 등 중국 정통 조사들의 이론을 수용하여 기존 이론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11세기말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의천은 기존의 의상계의 이론이 정통적 화엄 조사들의 이론과는 이질적인 자의적 이론임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정통적 사상의 수용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표훈의 신라적 화엄이론은 그 의미가 망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석굴암과 불국사의 사상적 의미도 함께 잊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

一然, 『三國遺事』  
均如, 『十句章圓通記』  
均如, 『釋華嚴旨歸章圓通鈔』  
義相, 『華嚴一乘法界圖』  
편자미상, 『法界圖記叢髓錄』  
義天 編, 『圓宗文類』

### 2. 단행본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서울 : 동국대출판부, 1989.  
김복순, 「表訓」, 『한국고대불교사연구』, 서울 : 민족사, 2002.  
김상현, 『신라화엄사상사연구』, 서울 : 민족사, 1991.  
배진달, 『연화장세계의 도상학』, 서울 : 일지사, 2009.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한국역사연구회 나말여초연구반, 『역주한국고대금석문(上)·(下)』, 서울 : 혜안, 1996.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 東京 : 春秋社, 1978.

### 3. 논문

강우방, 「석굴암 본존의 도상 小考」, 『미술자료』35, 국립중앙박물관, 1984.  
김남운, 「불국사의 창건과 그 위상」,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7.  
김리나, 「인도불상의 중국전래고 - 보리수하 금강좌진용상을 중심으로-」, 『한우근박사정년 기념사학논총』, 서울 : 지식산업사, 1981.  
김상현,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출된 化엄세계관」,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1991.

- \_\_\_\_\_, 「신라 중대 화엄학승 표훈고」, 『한국고대사탐구』1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 남동신, 「천궁으로서의 석굴암」, 『미술사와 시각문화』1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4.
- 문명대, 「불국사 불교미술의 종합적 연구(1)」, 『강좌미술사』12,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 민영규, 「석굴암조각의 교리배경」, 『고고미술』4, 한국미술사학회, 1961.
- 신현숙,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의 사상적 배경」, 『전통문화』6·7, 전통문화사, 1987.
- 이만, 「불국사건립의 사상적 배경」,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7.
- 전보영,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사학연구』109, 한국사학회, 2013.
- 최연식,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12, 불교학연구회, 2005.
- \_\_\_\_\_, 「『華嚴經問答』의 三乘極果廻心說 연구」, 『불교학연구』30, 불교학연구회, 2011.
- \_\_\_\_\_, 「의상의 불교관과 『일승법계도』의 사상」, 『제9회 의상화엄사상학술대회 자료집』, 부석사 화엄사상연구원, 2014.
- 홍윤식, 「신라사회와 만다라」, 『한국불교의 재조명』,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3.
- 佐藤厚, 「大記の五重海印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44-2,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1996.
- 木村清孝, 「『十句章圓通記』について」, 『華嚴學研究』創刊號, 東京: 華嚴學研究所, 1987.

<Abstract>

## The One Vehicle World[Eka-yana lokadhātu] Theory of Pyohun and the Founding of Bulguk-sa Temple and Seokkuram Cave

Choe, Yeon-Shik

In the middle of the eighth century, the Uisang school, which had been based at and around the remote Buseok-sa temple and concentrated on individual practices, moved to the capital and became one of the influential streams of Shilla Buddhism. The central figure of this was Pyohun, who lived at the Hwangbok-sa temple in the capital and tried to preach his master Uisang Huayan's thought to people other than his original disciples.

Pyohun suggested the one vehicle world theory consisted of the five ocean seal [*sāgarāmudrā*] Samadhis, five understandings (of the real world), and five Buddha lands. This was a systematic expatiation on Uisang's Huayan thought, especially his theory of the practitioner's realization of ocean seal Samadhi, and it must have helped the monks and common people to understand Uisang's thought.

Kim Dae-seong, who had learned Huayan thought from Pyohun, built Bulguk-sa temple and Seokkuram cave in Toham mountain and offered them to Pyohun and other disciples of Uisang as their bases in the capital. The unprecedented style of these temples reflects Pyohun's one vehicle world theory. The five Samadhi, understanding, and Buddha lands of the theory are divided into Buddha's sphere and Puxian [Samantabhadra] Bodhisattva. The Seokkuram cave and the Bulguk-sa temple are the materialization of the Buddha's and Puxian Bodhisattva's spheres respectively. The main Buddha of the Seokkuram cave is the materialization of the three innermost out of the five ocean seal samadhis, and the Bulguk-sa temple is the realization of the Lotus Treasury world, the outmost of the five Buddha lands.

According to Pyohun's theory, Kim Dae-seong seems to have wanted to realize the one vehicle world in Toham mountain.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 of his project will be investigated in depth.

• **Key words**

Pyohun, Uisang, Kim Dae-seong, Bulguk-sa Temple, Seokkuram-cave, One Vehicle World[Eka-yana lokadhātu] theory, Five Ocean Seal[sāgara-mudrā] Samādhis, Five Buddha Lands

논문접수일: 2015년 3월 31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27일,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31일.